

옛 광주교도소 부지 건립 '민주·인권기념파크' 축소 불가피

靑 “사업추진 근거 미흡·콘텐츠 재조정 필요” 제동 국정과제에서도 빠져... 광주시 다음달 TF 토론회 결정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 계획이 전면 재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사업 추진 근거 미흡과 콘텐츠 재조정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사업 축소 또는 일부 사업 우선 추진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 재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인권기념파크는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빠졌고, 1175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작정 정부 지원만을 요구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광주시가 사업부지 및 시설물 규모를 조정하는 정책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시민

사회수석실은 이 사업에 대해 “공약사업이지만 추진 근거가 미흡해 콘텐츠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인권기념파크에 대해 청와대는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 보강 ▲필요한 콘텐츠만 발굴 ▲사업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법무부 소유인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10만6771㎡에 유엔인권교육훈련센터와 솔로몬 로(Law)파크,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짓는 사업이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센터는 2만㎡에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시비 2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짓고, 솔로몬 로(Law)파크는 2만9900㎡에 240억원(국비 240억원)을 투입해 체험관과 연수관 2개 동을 건립하고,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2만7871㎡에 국비 3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을 짓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기본계획이 발표된 뒤 전반적인 사업 추진은 진척이 없고, 광주·창원·서울을 삼각 축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민주주의 전당도 전국적으로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그나마 솔로몬 로파크의 경우, 올해 국비 1억원이 반영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비에 준하는 사업비를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국·시비 1:1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총 사업비의 절반인 12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진입로 개설비 30억원만 내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오는 9월 6일 시의회와 5·18기념재단, 시민사회단체, 교수,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사업부지 조정 TF 정책토론회를 열어 향후 사업규모 등

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중앙부처와 사업개요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행안부의 2018년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통해 오는 2019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확하게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계획이 4년 전 짜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 부지 축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연다. 사진은 민주·인권기념파크 예정 부지인 옛 광주교도소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별교꼬막 10년새 98% 줄어 든 까닭은?

수산자원관리공단 “남획·기후변화 원인” 모패 단지 조성·종자 배양장 사업 시급

한해 생산량 2만t에 달하던 별교꼬막이 10년 사이에 98% 이상 줄어 고작 244t 채취에 그친 이유는 뭘까? 이는 단순 남획뿐만이 아니라 환경변화, 장기 서식에 따른 열성화, 미세조류의 이상번식에 의한 질식사 등 다양한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꼬막 감소 원인과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꼬막자원 회복’ 자료에서 꼬막감소 원인을 크게 6가지로 들면서 이들 원인이 상호 복합작용해 별교꼬막이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10년 전인 2007년 보성 별교꼬막 생산량은 2만t으로 전국 생산량 2만8000t의 7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급속도로 줄

어 2012년에 4500t, 지난해에는 고작 244t에 그쳤다. 이같은 감소원인에 대해 그동안 남획 때문이란 주장이 주를 이뤘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캐낼 정도로 무분별하게 꼬막을 채취하면서 ‘씨가 말랐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여기에 기후변화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기후변화에 따라 수온과 염분·용존산소 변화 등이 꼬막 유생성장을 방해했고 여름철 복사열에 의한 지온상승 등도 꼬막 생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꼬막 먹이인 식물·동물 플랑크톤의 부족에 의한 영양 결핍, 꼬막의 먹이 생물이 되지 못하는 기타 플랑크톤의 산소공급 방해에 따른 질식사 등도 거론됐다. 또 이곳에서 장기서식하는 꼬막들끼리

리만의 교배에 의한 열성화도 번식과 성장을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생식발달 장애 등에 의한 교미불능·생리장애, 체내 미량금속·중금속 축적에 의한 생식소 기능 및 소화대사 과정 장애도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됐다. 이들 원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별교꼬막이 급감한 것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꼬막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꼬막 모패단지 조성과 전문기관을 활용한 꼬막 치패의 생산·분류 등을 제시했다. 또 별교꼬막 종자배양장과 보성밸베존 및 계곡 발전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단이 분석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별교꼬막의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종묘배양장 공동 활용 사업으로 별교꼬막이 부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 건립 추진

현 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450억 들여 3~4층 규모

광주의 대표 문화 상품인 광주비엔날레의 새 전시관 건립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2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낡아 광주시 북구 용봉동 현 비엔날레 전시관 인근 주차장 부지에 새로운 전시관을 짓는 신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는 450억원(국비 300억원, 시비 100억원, 민자 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300여평), 지하 1층 지상 3~4층 규모의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을 건립한다. 오는 2018년~2020년, 3개년 사업으로 건립되는 이 전시관에는 전시실, 행사지원 공간, 교육참여 프로그램 공간, 판매시설, 홍보관 등이 들어서고 현 전시관은 국제 예술인 창작 센터로 리모델링한다. 하지만 아직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

고, 민자 유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1995년 건립한 현 비엔날레 전시관(약 8300㎡)은 곳곳이 낡고 누수 현상도 발생, 그동안 전시 공간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립 당시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아 체계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2018년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를 현 전시관이 아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최근 아시아문화전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회개헌특위, 31일 광주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

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시작해 기본권·지방분권·정부 형태·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기조발제는 송기

석 개헌특위 위원이 맡았다. 지역전문가 지정토론회에는 김민중 광주시의원, 김병록 조선대 법학과 교수,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또 임선숙 변호사, 조진상 동신대 교수, 최영태 전남대 교수, 허완중 전남대 교수 등도 참여해 헌법개정에 관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신단지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